

퀄리타스반도체, 美 실리콘밸리 삼성 파운드리, SAFE 포럼 참가

▶ 실리콘밸리 3년 연속 참가 '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'

<2024-06-03> 초고속 인터페이스 IP(설계자산) 개발 전문기업 퀄리타스반도체는 삼성전자가 개최하는 '삼성 파운드리 포럼(SFF)과 삼성세이프 포럼(SAFE. Samsung Advanced Foundry Ecosystem)에 참가하여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가할 것 이라고 3일 밝혔다.

이번 행사는 이달 12일부터 양일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'삼성 파운드리 포럼 & SAFE 포럼 2024'의 이름으로 개최된다.

삼성전자의 SAFE파트너는 약 100여개의 업체로, 파트너사들에게 넓은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며 정규 키노트와 파트너세션을 통해 삼성파운드리의 비전, 반도체 트렌드와 기술혁신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협업을 모색한다.

퀄리타스반도체는 2017년부터 삼성 SAFE™ (Samsung Advanced Foundry Ecosystem)의 IP 파트너로서 삼성파운드리의 높은 품질기준을 만족하며 기술력과 신뢰성을 글로벌 고객사들에게 인정받고 있다. 퀄리타스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의 핵심 인프라인 초고속 인터페이스 IP 를 제공하며 국내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미션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. 퀄리타스반도체는 3 개년 연속 삼성 세이프 포럼에 참가하고 있으며 지난 해 한국에서 개최했던 포럼에서 김두호 대표는 'GAA 공정 IP 개발 등 협력방안'의 주제로 강연을 하기도 했다. 이번 포럼에서 오프라인 부스를 통해 삼성전자 파운드리 파트너사로서의 역량을 강조하고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및 기술에 대한 소개와 네트워킹을 진행할 예정이다.